

# 유아의 공감에 관련된 변인 연구

## Factors related to Young Children's Empathy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 전공  
석사과정 장미선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  
조교수 문혁준

Major of Child & Famil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aster's course : Jang, Mi Seon*  
School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istant Professor : Moon, Hyuk Jun*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how characteristics of young children (sex, age, temperament), mothers (employed or unemployed, intimacy between mother and child, parenting attitudes), and home environment (pet, TV/Video viewing) relate to young children's empathy and to examine the relative effects of these variables on young children's empathy.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300 3-, 4-, and 5-year-olds selected from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in Busan. Data were analyzed via t-test,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girls had higher empathy score than boys. Young children's empath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sociability of young child's temperament, intimacy between mother and young child, reasoning guidance, affect, achievement of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al intervention toward young child after TV/video viewing. However, young children's empathy was correlated negatively with authoritarian control of parenting attitudes. Among these variables, young children's sex wa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주제어(Key Words): 유아(young child), 공감(empathy), 양육태도(parenting attitude), TV/비디오 시청(TV/Video viewing)

## I. 서론

Time지와 같은 세계적인 시사지(Gibbs, 1995)와 대중적인 서적(Goleman, 1995) 등에 감성지수가 소개되면서 21세기 인간의 성공, 건강, 행복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었으며, 그 열풍은 계속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을 관찰해 보면 지능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의 인간 관계에서 매우 포괄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며, 그 중에서도 가슴이 따뜻하여 타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알며 주변 사람들과 진정한 의미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갈 줄 아는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사미자, 1997).

타인을 배려하는 여러 동기 가운데 하나는 공감이다. 공감(empathy: 혹은 감정이입이라고도 불린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대리적으로 느껴보고 타인의 입장이 되어 보는 능력이다(박성희, 1996). 다시 말해 타인이 처한 상황 및 정서 상황을 지각하고 그의 역할을 수용하여 이에 대해 정서적으로 감정을 같이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감이 여러 가지 친사회적 행동, 즉 협동성, 사회성, 이타 행동 등과 상당한 수준의 정적 상관을 갖으며 이를 예측하는 기제가 된다는 결과들(박성희, 1994; 홍화진, 1987; Hoffman, 1975; Hughes, Tingle, & Sawin, 1981; Iannotti, 1978)과 공격적인 행동과는 부적 상관(홍정주, 1988)을 갖는다는 연구들을 통해 공감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감성지능)에서도 공감의 요인이 강조되고 있는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정서지능에서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공감능력은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알려져 있다(윤혁석·김연주, 1996; 장현갑, 1997; 전경구, 1997; 하유미, 1998). Clark(1980)도 공감부족, 즉 타

인의 욕구·불안·약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회적 긴장·갈등·폭력·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은 공감능력의 증진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종합해 보면, 친사회적 행동과 이타행동을 예측하는 강력한 기제가 되며, 정서지능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는 공감에 대한 연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유아의 공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연구되어져 왔다. 첫째, 유아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기질 등이 있다. 공감에 있어 성차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Levine과 Hoffman(1976)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여아의 공감이 남아보다 우월하였고, 노성은(1999)과 홍정주(1988)의 연구에서도 남아보다 여아가 더 높은 공감을 보였다고 나타났다. 반면 성별에 따른 공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들 또한 다수(Barnett, King, Howard, & Dino, 1980; Gove & Keatting, 1979; Marcus, Tellen, & Roke, 1979; Roe, 1980) 있다.

연령에서는 비교적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초보적 역할 수행을 하는 2~3세 경의 유아는 타인의 감정이 자신의 감정과 같지 않다는 감정조망수용능력을 갖추어 가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세나·이영석, 2000). Feshbach와 Roe(1968)는 5~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공감의 발달함을 밝혔고, Marcus와 그의 동료들(1979)은 공감 수준이 연령에 따라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해련과 최보가(2002)의 연구에서 만 3세 유아보다 만 5세 유아의 정서조망수용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공감이 발달함을 발견하지 못한 연구들(연진영, 1987; Bryant, 1982)도 있었다.

유아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기질과 공감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유아의 초기 정서 중 궁

정적 정서 표현은 공감과 같은 긍정적이고 협동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부정적 정서 표현은 공감적 반응이나 친사회적 행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ffman, 1975; Roberts & Strayer, 1996). 3세 유아의 공감에 대해 연구한 노성은(1999) 또한 정서성이 낮은 유아일수록, 즉 사회성과 활동성이 높은 유아일수록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둘째, 부모 변인에는 부모의 취업여부, 부모-자녀 친밀도, 양육태도 등이 연구되어져 왔다. 부모와 유아의 공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의 결과들(Feshbach, 1975; Hoffman & Staltzstien, 1967; Roe, 1977)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친밀도와 유아의 공감과의 밀접한 관련을 밝히고 있는 것에 반하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및 양육태도는 유아의 공감발달과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왔다.

특히 산업사회화가 되고 여성의 취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취업도 가정 내의 주목할 만한 변화가 되었다.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할 수 있는 유아의 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취업과 유아의 공감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감과 부모-자녀간의 친밀도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공감이 높다고 밝혀지고 있다. Fabes, Eisenberg, Karbon, Bernzweig, Speer와 Carlo(1994)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숙한 관계에서 나오는 정서적 힘이 자녀의 사회적 이해와 공감을 발달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최윤라(1989)의 연구에서도 자녀를 따뜻하게 보살피 주는 부모와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공감이 발달한다고 밝혔다.

양육태도에서는 유아를 훈육할 때 강제력을 사용하는 부모의 자녀는 타인을 생각하는 수준이 낮았고 유도적 방법을 사용하는 부모의 자녀는 공감을 가장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것(Hoffman & Staltzstien, 1967)으로 보고되었으며, 어머니의 인내심과 허용성이 공감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는 반

면 어머니의 체벌, 갈등, 거부, 과도한 통제 등의 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는 것(Feshbach, 1975)으로 밝혀졌다. 김성일(1998) 역시 부모가 수용적일수록 아동의 공감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부모의 지시/통제적인 태도는 아동이 타인을 생각하고 이해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Hoffman, 1975).

셋째, 유아와 부모 변인 이외에도 가정환경 변인들이 유아의 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들 변인으로는 애완동물, TV(비디오) 시청 등이 연구되어져 왔다. 공감과 애완동물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Davis(1987)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이 갖고 있는 애완동물과의 정서적 관계가 자신의 자아상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Enderburg와 Baarda(1995)는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집단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능력이 높다는 것을 연구 발표하였다. 국내에서 실험연구를 통해 애완동물 기르기가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화수(2001)의 연구에서도 애완동물 기르기에 참여한 집단 아동들의 공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애완동물과 함께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가정의 TV나 비디오의 보급은 유아들에게 있어 또 다른 가정환경적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통계청(1997) 자료에 의하면 96년 말 우리나라 가구의 TV 보유 실태는 99.4%에 이르고 이 중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40%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으며, 최근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문혁준(2000)의 VCR 보유 실태 조사에서는 90%에 이르는 가정이 비디오를 TV와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 거의 100% 보급되어진 TV(비디오)는 가정 내 주요한 환경으로써 TV(비디오)의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태도나 행동은 유아의 사회·정서·인지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유아는 이를 모방하기도 한다(이명진, 1980; 허미화, 1997). TV 프로그램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강혜경(2001)의 연구에서 TV 프로그램 중 폭력물은 아동에게 공격 행동 양식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갈등은 힘을 통해 해결된다고 인식하게

하며, 반복적인 공격물 시청은 폭력이나 타인의 고통에 대해 둔감화, 습관화를 낳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홍정주(1988)는 공격성과 공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공격성과 공감이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가정에서 TV(비디오) 시청을 둘러싼 부모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화가 미디어 영향력을 중재할 수 있는 효율적 변인임이 강조(안정임, 2003)되고 있다. 즉, TV(비디오) 폭력의 영향력 간의 관계를 검증한 Austin, Fujioka, Boils와 Engelberton(1999)의 실험연구에서 폭력적인 TV(비디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동안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들은 아동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덜 폭력적인 행위와 태도를 보이고, TV(비디오) 중재행위가 폭력물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구체적인 선행연구결과를 통해(Anderson, Lorch, Field, & Sanders, 1981; Messaris & Sarett, 1981) 어린 유아의 경우 TV(비디오) 시청을 전후로 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이 유아의 공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공감에 대한 연구는 70년대 시작되어 80년대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 후에는 주춤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현대에 들어서는 마음의 이론, 정서이해이라는 주제로 공감과 비슷한 맥락, 또는 정서지능이라는 공감의 상위요인으로 연구의 방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마음의 이론, 정서이해, 정서지능은 공감을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일부 영역으로 통합하여 보고 있으므로 공감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공감을 독립적 요소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유아 변인(성, 연령, 기질), 어머니 변인(취업여부, 어머니-자녀 친밀도, 양육태도), 가정환경 변인(애완동물, TV/비디오 시청)으로 나누어 각각의 변인이 유아의 공감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며 그 영향력을 규명해 봄으로써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친사회적 행동이나 이타행동의 증진과 공격성 감소의 중재변인이 되는 공감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을 밝혀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유아 변인(성별, 연령, 기질)은 유아의 공감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 변인(취업여부, 어머니-자녀 친밀도, 양육태도)은 유아의 공감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연구문제 3) 가정환경 변인(애완동물, TV/비디오 시청)은 유아의 공감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연구문제 4) 유아, 어머니, 가정환경 변인이 유아의 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 300명으로 평균 연령은 6.18세( $SD=81$ )였고, 남아가 54.7%, 여아가 45.3%였다. 유아의 교육기관분포를 보면, 반일제 유치원이 76.3%로 가장 많았고, 종일제 유치원이 12.4%, 어린이집이 11.3%로 나타났다. 가계 월수입은 200~299만원이 39.7%로 가장 많았으며, 300~399만원 24.3%, 199만원 이하 23.6%, 400만원 이상 12.3%의 순서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부모의 평균 연령은 어머니가 35.4세( $SD=3.45$ ), 아버지가 38.2세( $SD=3.70$ )였으며, 연령 이외의 부모 특성은 <표 1>과 같다.

### 2. 연구 도구

조사 도구는 총 119문항의 설문지로 유아의 공감 문항(20문항), 유아의 기질 문항(20문항), 어머니와 자녀 친밀도 문항(15문항), 어머니 양육태도 문항(42문항), TV 시청관련 문항(8문항), 애완동물 유무를 포함한 일반적 문항(14문항)으로 어머니가 직접 기입하도록 구성되었다.

〈표 1〉 연구 대상의 부모 특성 (N=300)

변 수	빈 도(명)	백분율(%)
어머니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113	37.6
전문대졸	68	22.7
대졸이상	119	39.7
아버지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61	20.3
전문대졸	65	21.7
대졸이상	174	58.0
어머니의 직업		
전업주부	215	71.7
생산직	2	0.7
서비스·판매직	40	13.3
사무·행정관리직	15	5.0
전문 기술직	21	7.0
기타	7	2.3
아버지의 직업		
무직	5	1.7
생산직	45	15.0
서비스·판매직	70	23.3
사무·행정관리직	114	38.0
전문 기술직	34	11.3
기타	32	10.7

1) 유아의 공감

Bryant(1982)가 제작한 정서 공감 척도(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와 연진영(1987)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송기종(1998)의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유아의 행동을 근거로 평정할 수 있도록 질문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유아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어머니는 각 문항(예: 귀댁의 자녀는 가끔 텔레비전의 슬픈 장면을 보면서 울니까?, 귀댁의 자녀는 생일날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친구를 보면 같이 기뻐합니까?)에 대하여 평소 유아의 보인 행동을 근거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며,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문항 수는 20문항이며 신뢰도 계수는 .72로 나타났다.

2) 유아의 기질

Buss와 Plomin(1986)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기질의 구성요소들을 바탕으로 개발한 아동용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를 한세영(1996)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정서성(6문항), 활동성(5문항), 사회성(9문항)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서성은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특성을, 활동성은 활력(vigor)과 민첩함(tempo)에 관련되며 끊임없이 움직이며 행동하는 특성을, 사회성은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향으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사교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어머니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기질 특성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정서성이 .67, 활동성이 .76, 사회성이 .79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72로 나타났다.

3) 어머니와 자녀 친밀도

양윤정(1993)이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직접 제작한 부모-자녀 친밀도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해당하는 문항만 사용하였으며, 어머니가 평소 유아와의 관계를 근거로 평정할 수 있도록 질문을 수정하고 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유아교육 관련전문가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어머니와 자녀 친밀도 도구는 서로 소외된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로 볼 수 있는 양극의 친밀도를 구성하는 7개 영역-어울림, 사랑(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자상, 솔직, 약속, 관심, 공평-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속하는 것을 구체적인 상황으로 표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 4점, 가장 낮게 나타난 경우 1점을 주어 각 문항에 대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친밀함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전체 문항 수는 15 문항이며, 신뢰도 계수는 .70으로 나타났다.

#### 4) 어머니의 양육태도

박성연과 이숙(1990)이 만든 합리적인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의 7개 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지도(9문항), 애정(9문항), 권위주의적 통제(9문항), 과보호(9문항), 성취(6문항)의 5개 요인만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의 양육태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합리적 지도 .84, 애정 .88, 권위주의적 통제 .77, 과보호 .68, 성취 .69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78로 나타났다.

#### 5) TV(비디오) 시청 관련

문혁준(2001)이 만든 비디오 시청 실태에 관한 문항, 유아의 비디오 모방 정도에 관한 문항, 비디오 내용에 대한 또래와의 대화 정도에 관한 문항, 부모의 비디오 프로그램 선정, 공청, 통제여부에 관한 문항, 부모의 제한적·평가적 개입 정도에 관한 문항 등 총 25문항 중 부모의 통제 여부(5문항)와 부모의 평가적 개입(3문항)에 관한 문항만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의 평가적 개입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78로 나타났다.

###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조사는 유아의 공감과 관련된 변인 연구를 위하여 2003년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우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교사를 통해 배부된 어머니 설문지 500부 중 62.2%인 311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0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모든 분석에 있어 유의도  $p < .05$  이하 수준에서 SPSS WIN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요 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Cronbach  $\alpha$ 의 계수를 구하였다.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 <연구문제 3>을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과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연구문제 4>를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유아 변인과 공감

#### 1) 유아의 성별에 따른 공감

유아의 성별에 따른 공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아( $M=3.55$ ,  $SD=.32$ )가 남아( $M=3.41$ ,  $SD=.29$ )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 $t=-3.98$ ,  $p<.001$ )가 있었다.

<표 2> 성별에 따른 유아의 공감 (N=300)

성별(N)	공 감		t 값
	평균(M)	표준편차(SD)	
남아(164)	3.41	.29	-3.98***
여아(136)	3.55	.32	

\*\*\* $p < .001$

#### 2) 연령, 기질에 따른 유아의 공감

연령, 기질과 유아의 공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 변인의 기질 중 사회성( $r=.24$ ,  $p<.001$ )이 유아의 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표 3> 연령, 기질에 따른 유아의 공감 (N=300)

독립 변인	유아의 공감
유아의 연령	.08
기 질	
정서성	-.06
활동성	.11
사회성	.24***

\*\*\* $p < .001$

유아의 기질 요인 중 사회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공감도 높음을 의미한다.

## 2. 어머니 변인과 공감

### 1) 어머니 취업 유무에 따른 공감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유아 공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취업(M=3.47, SD=.29)과 비취업(M=3.48, SD=.32)에 따른 유아의 공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어머니 취업 유무에 따른 유아의 공감 (N=300)

성별(N)	공 감		t 값
	평균(M)	표준편차(SD)	
취업(85)	3.47	.29	-.18
비취업(215)	3.48	.32	

### 2) 어머니-자녀 친밀도,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공감

어머니-자녀친밀도, 양육태도와 유아의 공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 변인들 중 어머니-자녀 친밀도( $r=.31, p<.001$ ), 합리적 지도( $r=.36, p<.001$ ), 애정( $r=.34, p<.001$ ), 권위주의적 통제( $r=-.15, p<.05$ ), 성취( $r=.19, p<.01$ )가 유아의 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표 5> 어머니-자녀 친밀도,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공감 (N=300)

독립 변인	유아의 공감
어머니-자녀 친밀도	.31***
어머니 양육태도	
합리적 지도	.36***
애정	.34***
권위주의적 통제	-.15*
과보호	-.04
성취	.19**

\* $p<.05$ , \*\* $p<.01$ , \*\*\* $p<.001$

관계를 보였다. 즉, 어머니와 자녀가 친밀할수록, 어머니가 합리적 지도를 할수록, 애정적일수록, 성취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유아의 공감은 높아지며, 어머니가 권위주의적 통제를 할수록 유아의 공감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 3. 가정환경 변인과 공감

### 1) 애완동물 유무에 따른 유아의 공감

애완동물 유무에 따라 유아의 공감이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완동물이 있는 경우(M=3.53, SD=.37)가 없는 경우(M=3.47, SD=.30)보다 유아의 공감 점수가 높게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6> 애완동물 유무에 따른 유아의 공감 (N=300)

애완동물 유무(N)	공 감		t 값
	평균(M)	표준편차(SD)	
애완동물이 있다(37)	3.53	.37	-1.12
애완동물이 없다(263)	3.47	.30	

### 2) TV(비디오) 시청의 제한 방법에 따른 유아의 공감

TV(비디오) 시청에 있어 규칙유무, 시간제한, 내용제한에 따른 유아의 공감은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TV(비디오)를 시청할 때 시청 규칙이 있는 집단(M=3.50, SD=.33)이 시청 규칙이 없는 집단(M=3.43, SD=.28)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 $t=2.08, p<.05$ )가 있었다. 한편 TV(비디오) 시청 시간제한과 내용제한에 따른 유아의 공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TV(비디오) 시청의 제한 방법에 따른 유아의 공감

(N=300)

제한 방법	집 단(N)	공 감		t 값
		평 균(M)	표준편차(SD)	
시청규칙유무	있다(187)	3.50	.33	2.08*
	없다(113)	3.43	.28	
시청시간제한	제한 한다(224)	3.48	.31	.64
	제한하지 않는다(76)	3.46	.33	
시청내용제한	제한 한다(238)	3.49	.31	1.19
	제한하지 않는다(62)	3.43	.29	

\*p&lt;.05

### 3) TV(비디오) 시청 중재 시기에 따른 유아의 공감

TV(비디오) 시청 중재 시기에 따른 유아의 공감은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TV(비디오) 시청 후에 유아와 대화를 한 집단(M=3.53, SD=.33)이 유아와 대화를 하지 않은 집단(M=3.42, SD=.29)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t=2.93, p<.01)를 보여 TV(비디오) 시청 후에 유아와 대화를 할 때 유아의 공감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시청 전과 시청 중의 중재에 따른 유아의 공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4) TV(비디오) 폭력장면 개입에 따른 유아의 공감

TV(비디오) 폭력장면 개입에 따른 유아의 공감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폭력장면의 개

입방법을 2가지로 분류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TV(비디오) 폭력장면을 보게 하는 집단(M=3.41, SD=.30)보다 보지 못하게 하는 집단(M=3.54, SD=.31)이, TV(비디오) 폭력장면시 아무 말도 안 하고 보는 집단(M=3.37, SD=.24)보다 나쁘다고 지적하며 보는 집단(M=3.49, SD=.32)이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t=-3.70, p<.001; t=-2.02, p<.05)가 있었다. 즉, TV(비디오) 폭력장면에 있어 부모의 적극적인 중재가 개입될 때 유아의 공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4. 유아, 어머니, 가정환경 변인이 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유아 변인(성별, 연령, 기질), 어머니 변인(취업유무, 어머니-자녀 친밀도, 양육태도), 가정환경 변인(애완동물유무, TV/비디오 시청)들 가운데 유아의

〈표 8〉 TV(비디오) 시청 중재 시기에 따른 유아의 공감

(N=300)

중재 시기	집 단(N)	공 감		t 값
		평 균(M)	표준편차(SD)	
시청 전(前)	대화한다(137)	3.51	.33	1.59
	대화하지 않는다(163)	3.45	.29	
시청 중(中)	대화한다(227)	3.48	.31	.84
	대화하지 않는다(73)	3.45	.31	
시청 후(後)	대화한다(155)	3.53	.33	2.93**
	대화하지 않는다(145)	3.42	.29	

\*\*p&lt;.01



〈표 9〉 TV(비디오) 폭력장면 개입방법에 따른 유아의 공감

(N=300)

	집 단(N)	공 감		t 값
		평 균(M)	표준편차(SD)	
폭력장면	보게 한다(150)	3.41	.30	-3.70***
	보지 못하게 한다(150)	3.54	.31	
폭력장면	아무 말도 안한다(29)	3.37	.24	-2.02*
	나쁘다고 지적한다(271)	3.49	.32	

\*p<.05, \*\*\*p<.01

공감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과 그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실시에 앞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를 탐색하였다. 일차적으로 분석에 투입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r=.50$  이하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지만 애정과 어머니-자녀친밀도, 애정과 합리적 지도, 애정과 권위주의적 통제의 상관 계수가 각각  $r=.71(p<.001)$ ,  $r=.75(p<.001)$ ,  $r=-.54(p<.001)$ 로 매우 높게 나왔다. 이는 다중 공선성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회귀분석에서 애정 변인을 제외하고 실시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여부는 회귀분석에 투입된 각 변수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만약 VIF 값이 10 이하일 경우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강병서, 1999).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VIF 값을 살펴본 결과 1.01~1.99의 값을 보여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기본가정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자기회귀 현상의 존재를 살펴보기 위하여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 이 계수가 2.07로 나타나 자기회귀 현상의 부재에 대한 기본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와 같이 기본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살펴본 중다회귀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 변인, 어머니 변인, 가정환경 변인을 차례로 첨가하여 본 결과, 유아 변인이 유아의 공감을 설명하는 비율은 12%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변인을 첨가하여 분석하였을 때 유아의 공감에 대한 설명력이 12% 증가하여 24%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정환경 변인을 첨가하였을 때 설명력이 3% 증가하여 유아, 어머니, 가정환경 변인 전체가 유아의 공감을 설명하는 영향력은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을 고려하였을 때 유아의 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beta=.24$ ,  $p<.001$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질 요인 중 사회성( $\beta=.19$ ,  $p<.01$ ), 어머니-자녀 친밀도( $\beta=.19$ ,  $p<.01$ ), 양육태도 중 합리적 지도( $\beta=.17$ ,  $p<.05$ ), TV(비디오) 시청 후 대화( $\beta=.14$ ,  $p<.05$ ), 폭력물 시청개입 1( $\beta=.11$ ,  $p<.05$ )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보다는 여아가 더 높은 공감을 보이고, 유아의 기질 요인 중 사회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와 자녀가 친밀할수록, 어머니가 합리적 지도를 할수록, TV(비디오) 시청 후 유아와 대화를 할수록, 폭력물 시청시 부모의 중재가 개입될수록 유아는 더 높은 공감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공감에 미치는 관련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 변인(성별, 연령, 기질), 어머니 변인(취업여부, 어머니-자녀 친밀도, 양육태도), 가정환경 변인(애완동물, TV/비디오 시청)과 유아 공감과의 관계와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공감과 유아 변인간의 관계를 보면,

〈표 10〉 유아의 공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300)

독립 변인	공감 Model 1		공감 Model 2		공감 Model 3	
	b	$\beta$	b	$\beta$	b	$\beta$
유아 변인						
유아의 성별 <sup>1)</sup>	.15	.24***	.15	.24***	.15	.24***
유아의 연령	.01	.03	.03	.07	.02	.06
기질						
정서성	-.01	-.01	.03	.05	.03	.05
활동성	-.02	-.04	-.04	-.09	-.03	-.07
사회성	.16	.27***	.13	.22***	.12	.19**
어머니 변인						
어머니의 취업 <sup>2)</sup>			-.02	-.03	-.02	-.03
어머니-자녀 친밀도			.24	.19**	.24	.19**
어머니 양육태도						
합리적 지도			.17	.22***	.13	.17*
권위주의적 통제			-.01	-.02	.00	.00
과보호			.03	.04	.02	.03
성취			.01	.01	.02	.03
가정환경 변인						
애완동물 유무 <sup>3)</sup>					.05	.06
시청 규칙제한 <sup>4)</sup>					-.02	-.03
시청 시간제한 <sup>5)</sup>					.01	.02
시청 내용제한 <sup>6)</sup>					.01	.01
폭력물 시청개입 <sup>17)</sup>					.07	.11*
폭력물 시청개입 <sup>28)</sup>					.05	.05
시청 중재						
시청 전 대화					-.01	-.02
시청 중 대화					-.04	-.06
시청 후 대화					.06	.14*
Constant		2.82		1.35		1.34
R <sup>2</sup>		.12		.24		.27
$\Delta R^2$				.12		.03
F		7.91***		8.31***		5.14***

\*p&lt;.05, \*\*p&lt;.01, \*\*\*p&lt;.001

가변수 : 1)남아=0, 여아=1, 2)비취업=0, 취업=1, 3)~6)없다=0, 있다=1,

7)보게한다=0, 보게하지 않는다=1, 8)아무 지적하지 않는다=0, 나쁘다고 지적한다=1

우선 여아가 남아보다 공감이 더 높았는데 이는 유아의 공감을 연구한 연진영(198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여아의 공감이 남아보다 우월하다는 Levine과 Hoffman(197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차이는 태어날 때부터 여아는 남아보다 더 정의적인 측면을 강조 받고 양육되며, 사회적 환경에서도 여아는 보다 섬세하고 감정에 민감하며 이에 반응

하도록 요구되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성역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아의 기질 중 사회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공감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노성은(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유아의 초기 정서 중에서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포함하는 사회성은 공감과 같은 긍정적이고 협동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

시켜 주기 때문으로(Roberts & Strayer, 1996)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유아 변인들 중 남아보다 여아가, 사회성의 기질이 낮은 유아보다 높은 유아가 공감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공감 발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부모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개인적 요소들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아와 사회성 기질이 높은 유아들은 계속 공감 능력을 유지·발달할 수 있도록 돕되, 남아와 사회성이 낮은 유아들은 타인의 감정을 조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감능력을 개발하고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를 탈피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유아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아의 공감과 어머니 변인 간의 관계를 보면, 어머니와 자녀가 친밀할수록 공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Tizard와 Hughes(1984)의 연구에서 일상생활을 통해 유아가 어머니와 친밀감 및 감정표현을 자주 나눔으로써 서로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유아의 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부모-자녀 사이의 친숙한 관계에서 나오는 정서적 힘이 자녀의 사회적 이해와 공감을 발달시킨다고 보고한 Fabes와 그의 동료들(1994)의 연구 결과와 자녀를 따뜻하게 보살피 주는 부모와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감이 발달한다고 밝힌 최윤라(198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양육태도에 있어서 합리적 지도를 할수록, 애정적일수록, 성취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유아의 공감이 높게 나타난 반면, 권위주의적 통제를 할수록 유아의 공감에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인내심과 허용성이 공감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어머니의 체벌, 갈등, 거부, 과도한 통제 등의 태도와는 부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밝힌 Feshbach(1975)와 부모가 수용적일수록 유아의 공감이 높다고 보고한 김성일(1998)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통제적인 양육태도의 경우 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금지와 억제를 강

요하는 경향이 있어 남을 생각하는 수준이 낮다(Hoffman & Staltzstien, 1967)고 볼 수 있으므로 유아의 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모의 애정적, 합리적 양육태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하겠다.

어머니의 취업은 공감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현대의 유아들이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관계없이 사교육 등으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접촉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와 접촉에서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부분의 영향이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유아의 공감과 가정환경 변인간의 관계를 보면, 시청 규칙이 있고 폭력 장면이 있어 부모의 중재가 개입되며, TV(비디오) 시청 후 대화를 하는 가정의 경우 유아의 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TV(비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적극적인 중재가 유아의 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이다. 이는 TV(비디오) 프로그램 중 폭력물은 유아의 공격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며(강혜경, 2001), 공감과 공격성은 부적 상관이 있고(홍정주, 1988) 부모와 자녀 간의 TV와 관련된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이 유아의 인지·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Messaris & Saret, 1981) 여러 연구 결과들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가정환경 변인 중 애완동물에 따른 유아의 공감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집단의 사회·정서적 발달 측면인 공감, 즉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밝힌 Endenburg와 Baarda(1995)의 연구와 애완동물 기르기에 참여한 집단 유아가 더 높은 공감을 보였다는 이화수(2001)의 연구 결과와 달리 공감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아 변인, 어머니 변인, 가정환경 변인이 유아의 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성별, 기질-사회성, 어머니-자녀 친밀도, 합리적 지도의 양육태도, TV(비디오) 시청 후 유아와 대화, 폭력물 시청개입 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공감에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어머니

를 포함한 환경적인 요인도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하면, 타인과의 관계 유지, 공감과 같은 능력은 가정에서 부모와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하여 계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능과 달리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노력에 따라 증진이 가능하다(Goleman, 1995)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시켜 주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변인을 포함한 환경적인 변인들 중 의미 있게 나타난 변인(어머니와 자녀의 친밀도, 어머니의 합리적인 지도, TV(비디오)시청 후 대화, 폭력물 시청시 개입)의 영향력은 인지적·학문적 측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상과 가족 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타인의 감정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공감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어머니와 가족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모교육, 또는 공감 능력 함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 및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유아의 공감 측정에 있어 직접 관찰이 아닌 부모에 의한 평정법에 의존하여 실제보다 과장 또는 과소 측정되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공감 측정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에 있어서 많은 가변수가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유아의 공감에는 아버지 변인,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 참고문헌

강병서(1999). 인과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서울 : 무

역경영사.

강혜경(2001).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일(1998). 부모의 수용과 청소년의 공감발달. 청소년학연구, 5(1), 21-51.

노성은(1999). 3세 유아의 감정이입 능력에 관련된 변인들 : 유아의 성(性),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혁준(2000). 유아의 비디오 이용 현황 및 실태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0), 151-164.

\_\_\_\_\_(2001). 유아의 비디오 시청에 있어 부모의 태도 및 관여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3), 11-23.

박성연, 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9.

박성희(1994). 공감·공감적 이해. 원미사.

\_\_\_\_\_(1996). 공감의 구성요소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연구. 교육학연구, 34(5), 143-166.

사미자(1997). 교사가 알아야 할 심리학의 모든 것-지능지수와 감성지수. 교육교회, 1(243), 38-42.

송기종(1998). 아동의 공감수준과 친사회적 도덕추론능력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안정임(2003). 한국에서의 TV시청중재 유형과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7(6), 332-424.

양윤정(1993). 국민학교 고학년 아동의 폭력 Video 경험과 접촉과 공격성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진영(1987). 아동의 공감 발달과 관련된 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윤혁석, 김연주(1996). 감정지능의 의미와 측정. 교육심리연구, 10(3), 183-204.

이명진(1980). 텔레비전의 어린이 프로그아가 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세나, 이영석(2000). 유아를 위한 친사회적 프로그램이 유아의 우정개념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1(2), 147-156.
- 이혜련, 최보가(2002). 학령전 아동의 정서이해와 부모의 정서표현성 및 아동정서 수용태도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0), 103-112.
- 이화수(2001). 애완동물 기르기가 유아의 감정이입 및 동물애호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현갑(1997). 정서지능 개관. 한국심리학회 1997년도 동계 연구 세미나 자료집, 1-20.
- 전경구(1997). 정서지능과 적응. 한국심리학회 1997년도 동계 연구 세미나 자료집(별쇄본).
- 최윤라(1989). 확대받은 아동의 공격성과 감정이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1997). '96 가구 소비 실태 조사 결과 가구의 생활 수준 및 실태. 통계청 사회 통계과.
- 하유미(1998). 아동의 성, 초기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정서 표현 : 자부심과 수치심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미화(1997). 아동의 공감력 발달과 권유적 훈육 방식에 대한 고찰. *초등교육연구*, 11, 51-69.
- 홍정주(1988). 아동의 감정이입과 공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화진(1987). 아동의 공감발달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derson, D. R., Lorch, E. F., Field, D. E., & Sanders, J. (1981). The effects of TV program comprehensibility on preschool children's visual attention to television. *Child Development*, 52(1), 151-157.
- Austin, E. W., Fujioka, Y., Boils, P., & Engelberton, J. (1999). How and Why parents take on the tub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7(2), 147-158.
- Barnett, M. A., King, L. M., Howard, J. A., & Dino, G. A. (1980). Empathy in young children: Relation to parents' empathy, affection and emphasis on the feeling of 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243-244.
- Bryant, B. K.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Buss, A. H., & Plomin, R. (1986). The EAS approach to temperament. In R. Plomin and J. Dunn(Eds.), *The study of temperament : change, continuities and challenges*. Hillsdale, NJ : Erlbaum.
- Clark, K. B. (1980). Empathy: A neglected topic in psychological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35(2), 187-190.
- Davis, J. (1987). Pre-adolescent self-concept development and pet ownership. *Anthrozoas*, 1, 90-94.
- Endenberg, N., & Baarda, B. (1995). The role of pets in enhancing human well being: Effects on child development. In I. Robinson(Ed.), *The waltham book of human animal interaction : Benefits and responsibilities of pet ownership*(pp.7-17). Pegamon.
- Fabes, R. A., Eisenberg, N., Karbon, M., Bernzweig, J., Speer, A. L., & Carlo, G. (1994). Socialization of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and prosoci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30(1), 44-55.
- Feshbach, N. D. (1975). Empathy in children :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 *Counseling Psychologist*, 4(2), 25-30.
- Feshbach, N. D., & Roe, K. (1968). Empathy in six and seven year olds. *Child Development*, 39, 133-145.
- Gibbs, N. (1995). The EQ Factor. (Time, October 2, 1995. Human Development 97/98. pp106-110.

- pp60-66, 68.)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ntam.
- Gove, F. L., & Keating, D. P. (1979). Empathic role-taking precursor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594-600.
- Hoffman, M. L. (1975). Developmental synthesis of affect and cognition and its implication for altruistic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607-622.
- Hoffman, M. L., & Staltzstien, H. D. (1967).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5-57.
- Hughes, R., Tingle, B. A., & Sawin, D. B. (1981). Development of empathic understanding in children. *Children Development*, 52, 122-128.
- Iannotti, R. J. (1978). Effects of role taking experience on role taking, empathy, altruism, and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4, 110-124.
- Levin, L., & Hoffman, M. L. (1976). Early sex difference in empathy. *Developmental Psychology*, 12, 557-558.
- Marcus, R., Tellen, S., & Roke, E. Jr. (1979). Relation between cooperation and empathy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5(3), 346-347.
- Messaris, P., & Sarett, C. (1981). On the consequences of television-related parent-child interac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7, 226-244.
- Roberts, W., & Strayer, J. (1996). Empathy,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449-470.
- Roe, K. (1977). A Study of empathy in young children greed and U. S. childre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8, 493-501.
- \_\_\_\_\_ (1980). Toward a contingency hypothesis of empathy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5), 991-994.
- Tizard, B., & Hughes, M. (1984). *Young children learning*. London: Fontana.
- (2004년 2월 24일 접수, 2004년 6월 17일 채택)